

월간 실적보고

2017.11

- ▷ 17년 11월 패키지 ASP 약 5% 증가
- ▷ 17년 4분기~18년 1분기 예약률 호조 지속

Summary of 2017 Nov

1. 해외여행상품 (패키지+티켓+단품) **24.9%** 성장

- 해외 총 송객인원과 단품 (입장권, Pass 등)을 합산한 수치

2. 해외 총 송객인원 (패키지+티켓) **22.0% YoY** 증가

- 패키지 **22.4%** / 티켓 **21.4% YOY** 증가

(13.9만명 / 9.3만명)

3. 지역별 송객인원 증감 (YoY)

- 일본 **+56%** 동남아 **+43%** 유럽 **+25%** 미주 **+14%**
- 남태 **-0.6%** 중국 **-25%**

11월 Review : 해외여행상품 (패키지+티켓+단품) 성장률 24.9%

해외 총 송객인원 (패키지+티켓) 성장 22.0%, 송객인원 23.2만명

패키지 인원 성장률 22.4%, 13.9만명. 10월 추석 연휴 직후에도 높은 볼륨 성장, ASP도 동반 상승.

티켓 (FIT) 성장률 보다 높은 패키지 볼륨 성장률.

티켓 인원 성장률 21.4%, 9.3만명. 전년 동월보다 높은 성장률.

11월 실적

(단위 : 명, %)

	패키지	티켓	총 송객인원
2017	138,867	92,831	231,698
2016	113,433	76,492	189,925
YOY	22.4	21.4	22.0

패키지 YoY : 9월 6.7% → 10월 3.0% → 11월 22.4%

티켓 YoY : 9월 29.2% → 10월 19.7% → 11월 21.4%

총송객 YoY : 9월 16.6% → 10월 9.6% → 11월 22.0%

지역별 성장 (YoY)

일본 55.7% 동남아 42.8% 유럽 24.7% 미주 14.3% / 중국 제외한 전 지역 ASP 상승

일본 +55.7%, 하반기 들어 가장 높은 성장률. 두 자릿수 성장률 8개월 지속.

동남아 +42.8%, 하반기 최고 성장률. 11월 ASP YoY 증가율 가장 높은 지역.

유럽 +24.7%, 겨울 비수기 진입했음에도 여전히 장거리 지역 중 최고 성장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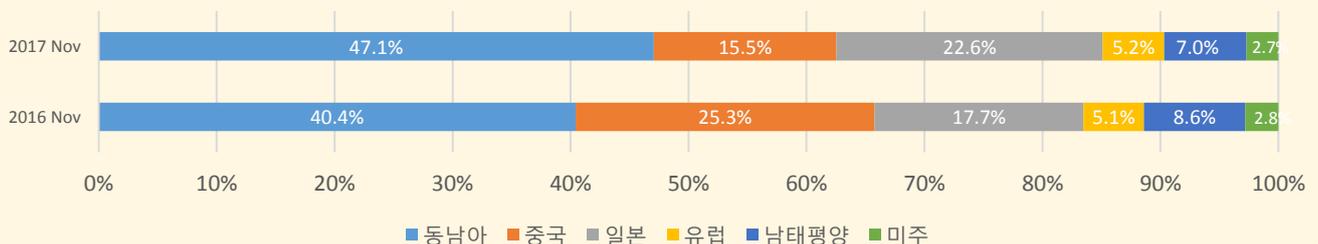
미주 +14.3%, 유럽과 함께 꾸준한 성장하며 장거리 지역 성장 지속.

남태평양 -0.6%, 전년 동월 전체 지역 중 가장 높은 성장률 기록했던 높은 기저로 인해 소폭 역성장.

중국 -25.1%, 4월 이후 평균 -45% 였던 역성장 폭을 크게 줄이며 실적 개선. 중국행 여행수요 지속 증가.

중국 제외한 전 지역 ASP YoY 증가, 비수기임에도 볼륨과 ASP 모두 상승.

인원 비중



예약률 증감 (PKG)

(단위 : %)

	17년 12월	18년 1월	18년 2월
증감률	31.5	39.0	11.4

* 2017.11.30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 / 전년 동일 기준시점까지의 누적 모객 YoY 비교

17년 12월은 30% 이상의 매우 양호한 예약률 지속. 17년 4분기는 10월은 연휴로 인한 수익, 11월~12월은 볼륨 증가하여 분기 전체 수익과 볼륨 모두 증가 가능.

18년 1분기도 좋은 예약률 유지. 18년 1월의 예약율은 39%로 전년 동일 시점의 (2016년 11월 30일 기준) 17년 1월의 예약률이 12.9%였음을 고려하면 전년 동일 시점 대비 매우 긍정적.

18년 2월은 전년 동월 높은 기저 효과로 인한 부담이 있는 상황. 하지만 설 연휴가 있어 해당월에 근접할 수록 근거리 지역 위주 예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예약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.